

AT SEA

내려갈 때 보았네 /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시인 고은은 삶의 절정을 지나 나이드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두 줄의 시로 읊었다. 지난 시월, 그 원숙한 시선을 가진 이 백 여 명과 함께 바다에 있었던 5박 6일을 떠올려 본다. 나는 사대부고 출신이 아니지만 1959년에 사대부고를 졸업한 엄마를 따라 2019년 10월 26일 브룩클린 항을 떠나는 3600명 정원의 17층 짜리 크루즈 선박 프린세스호에 올랐다. 사대부고 미주 총동창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글로벌 리유니언 행사에는 전세계에서 온 8기부터 47기까지의 사대부고 동문과 한살배기 아기를 포함한 동문 가족과 친구 등 161명이 함께 했다. 옛새 내내 새로운 곳에 발을 디디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나아가 알던 사람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다.

장기자랑에서 만담으로 인기상을 받은 이는 사십년째 같은 만담을 해도 아직도 통한다며 유머가 살아있으려면 전달을 잘 해야 하고, 자고로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비법을 공개했다. 어디 유머뿐일까? 소통이 열쇠인 지금 이 시대에 가진 정보를 잘 전달하고 사실 없이 전하는 기술을 가진 이들은 이번 여행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세계 방방곡곡에 새들의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 이는 직접 찍은 다양한 새들의 사진과 함께 그것들의 고운 깃털과 독특한 생태에 관한 강연을 했다. 그는 자신이 은퇴 한 후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억하고 카메라를 메고 떠난 날이야말로 새로 태어난 날이었다고 고백해서, 우리 자신의 꿈을 돌아보게 만들고, 마음 속에 잠자던 새들이 퍼덕이며 깨어나는 것을 기다리게 만들었다.

최고령의 참석자인데도 행사 곳곳에서 호스티스 역할을 담당했던 이는, 난 말이야 매일 밤 10시면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잠들어. 아침에 눈이 떠지면 아니고 내가 부활했구나. 오늘도 기대 이상으로 채우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물같은 하루를 살아야 겠구나. 하고 사는거지. 그리고 보면 It's Okay. That's Okay. 두루두루 Okay.라며 허스키하고 큰 목소리로 거듭 오케이를 외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었다.

첫 기착지인 캐나다의 국경도시 헬리팩스는 노바스코샤 주의 수도이고 오랫동안 군사기지로 명성을 얻은 곳이었다.



11기 흥(박)효화(오른쪽) 동문이 딸(박영은)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사진에 담고 있다.

하루를 보내는 방법도 다 달라서, 어떤 이는 Hop On Hop Off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 동안 도시를 구경한 뒤 탔던 자리에서 내려 배로 돌아갔고, 어떤 이는 13 정류장마다 일일이 내려 관광지를 하나하나 제 발로 밟았고, 어떤 이는 일단 한 바퀴는 앉아서 다 돌고 다시 올라탄 버스에서 꼭 가고 싶었던 정류장에만 내려 구경을 했다. 덜컹거리는 버스 안에서 낮잠에 빠진 이가 있었는데, 크루즈측이 제공한 다른 관광 옵션을 택해 유명하다는 등대 레스토랑의 바닷가재 요리를 먹으러 간 이도 있었고, 아예 건강과 일 때문에 육지관광을 마다하고 그냥 배에 남은 이도 있었다.

하루를 보내는 모습도 161명이 다 이렇게 제각각인데, 열 일곱, 열 여덟 살에 사대부고를 졸업하고 브룩클린 항에서 만나 다시 한 번 한 배를 타는 이때까지 그들의 삶에 어찌 우여곡절이 없었으며, 굴곡이 없었으랴. 난 동창회는 무슨 임원이나 무슨 장 아니면 못 오는 텐 줄 알았어. 근데 어제 밤에 너희랑 같이 밥 먹고 수다 떨면서 내가 왜 지난 오십 년 동안 여길 안 왔을까. 나 그동안 헛살았다, 싫어. 이제 꼭 안 빠지고 올꺼야. 그간 못 온 사연도, 지위도, 부귀도 다 내려놓고, 건강한 얼굴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 즐거웠던 동문들, 올망졸망한 딸 아이 넷을 데리고도 참가자 전원을 위한 개별 서바

이별 패키지를 만들어 돌린 47기 막내부터. 어쩔 연습할 때보다 이렇게 못하니, 우리 90에 다시 하면 인기상은 줄거야. 니들 다 90까지 살어. 내 나이가 어때서 다시 부르고 상 타게. 장기자랑 끝나고 새롭게 다짐하는 팔순의 11기까지. 바다에 있는 동안은 모두 다음 순간 벌어질 일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하나였다.

두번째 기착지인 뉴브런즈워 주의 세인트 존에서는 배에서 내린 모든 일행이 대절버스 세 대에 나누어 탔다. 간만의 차의 따라 바닥이 드러나는 St. Martins Sea Caves와 하루에 두 번 바닷물과 강물이 기세를 바꾸어 작은 폭포를 만드는 Reverse Falls 를 구경했는데, 미주총동창연합회 회장이 기수 높은 동문과 손님들을 모신 첫번째 버스에 함께 탔다. 몇 달 전부터 세계 곳곳의 동문들에게 일일히 진행사항을 업데이트 해 준 이였다. 여권을 호텔에 두고 온 동문의 승선 수속때문에 모든 일정이 계획과 어긋난 첫 날부터, 마지막 날 배에서 내린 동문들이 온 곳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공항에 갈 택시를 탈 때까지, 그는 물론 아내까지 동분서주 설 틈이 없었다. 세인트 존 강의 급류를 보고 바다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그가 애창곡이라며 틀어주었던 Nat King Cole 의 Time and The River가 귓가에 맴돈다.

세월과 강물이 내 사랑을 내게 데리고 오리. 그래야만 한다면, 난 그녀를 바다로 데려간 강가에서 영원히 기다릴 거요. 여기 강가에서, 우리는 사랑했고, 우리는 웃고, 우리는 울었지. 그러나 세월 지나 내 사랑 그대는 물살과 함께 사라지고 빈 가슴만 남았소. 얼마나 오랫동안 외롭게 지냈는지. 밝게 빛나는 사랑의 별이여, 내겐 그녀가 필요하오. 오늘 밤 그녀를 내 품에 인도해 주오. 세월과 강물은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그러나 시간이 멈추고 강이 마르는 날까지 내 심장은 다른 이를 위해 뛰진 않을거요.

내게 이번 여행은 심장시술을 앞둔 엄마가 흑여 동문들 사이에서 쓰러지시면 어떡할까 싶어 시작되었다. 그러나 빠르게 흘러만 가는 세월과 강물의 흐름 속에서 다시 만난 사대부고 160명과 한 배에서 함께 웃고 함께 먹었던 5박 6일을 통해 사대부고가 엄마의 모교일 뿐아니라 내게도 고은의 시에 나오는 그 꽃처럼 특별해 졌다. 먼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동문을 지원하게 될 지, 해외에 사는 동문의 자녀와 자손들이 사대부고를 견학하며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만들어보게 될 지, 내년 스모키 마운틴에서 있을 총회에 또 엄마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될 지, 바다에서는 육지에 닿아 할 일을 아직 모르지만, 일단 동문회 지원양식서의 엄마 이름 아래 내 주소와 연락처도 적어 넣었다.

강을 바라본다

동창회는 강이다.

바람 시원한 강가에 앉아 강을 바라본다.

아틀란틱 바다는 얼마나 많은 강을 품고 있을까?

내 저물녘에 바라보는 강 지극히 흐뭇하구나

아틀란틱 바다에서 윗물 아랫물 만나 흐르면서
사귀를 갖는 동창강이 무척 아름답다.

한강은 교가에서 흘러 세상끝까지

동창강은 그침없이 우리 마음에 흐른다.

거의 반세기, 때론 실같이 흘러,

그것도 남여공학 푸른 강이네!

나라 안에서, 나라 밖에서 역사 바다 이루네.

의미있게 만나는 천하 부고 강이네!

바윗돌을 만나면 돌아흐르기도

폭포를 뛰어 내리기도

폭포도, 흙탕물도, 더러운 것도 가라앉히며

바람 센 날도, 햇빛 눈부신 날도,

구름 덮힌 하늘이

가을 어둡게 해서 흐리기 힘들어도

우리 서로 강바람이길…….

우리는 지구별에서 동창 인연으로 만난

작은 물방울…….